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게 제25257호】 주제 105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청년강국 주인공들의 총정의 선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의 건인발발의 투쟁에 의하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온 세상이 보란듯이 기연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로 훌륭히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유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의 지휘성원들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 편속공격, 계속건설, 계속혁신에 나갈 마음의 신념을 불러 더 바짝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올해 청년절까지 끝낼것을 명령하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이 적극 도와주도록 온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결사판결의 낮과 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은 북방의 혹한속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청춘의 뜨거운 심장으로 녹이면서 높고 험한 심산극에 만년언제를 쌓아가며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백두대지에 조선청년은 통령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긴 그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청년강국의 앞길이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보여준 누구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와보면 절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전력생산기지이면서도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을 이어가면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전으로 무조건 완공할것을 맹세다지였으며 그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

나섰다. 백두산영웅청년동맹대원들은 박달나무도 일어머질 혹한속에서도 굴함없는 투쟁을 벌려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신념의 인제,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우고 전력생산의 자랑찬 동음을 높이 울림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

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더운 백두청춘들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완공하였는데 자신께서 주신 명령을 넘기거나 앞당겨 끝냈다고,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이처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낳고있으며 당의 품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후비대는 이렇

게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시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바라보기만 해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절로 난다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까지 건설됨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기쁜것은 삼지연군의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 창조자의 거인들로 자라났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로 가시는 길에 1호발전소 언저리를 부감하시면서 언저리가 볼수록 멋있다고, 하나의 예술작품같다고, 언저리하루에 인공못과 공원을 특색있게 건설했는데 교양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 전변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